발행일 : 2025년 3월 6일 | 발행인 : 정진홍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여성과 노동자에게 혐오와 탄압을 쏟아부은 윤석열정권

윤석열대통령은 '(여성들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등 여성정책을 후퇴시키고자 했습니다.
쟁의행위 손배가압류제한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한 노조법 2,3조가 10여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윤석열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도와 회계공시제도로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성별임금 격차 1위

대한민국은 OECD 가입 후 근 30년동안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5만원을 받습니다. 출산과 육아

금속노조경주지부 여성위원회는 3.8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사업과 최저임금인상요구 캠페인 (6월), 10월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평등어우러짐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후 다시 찾는 일자리는 단기계약직이거나 최저임금사업장입니다. 운 좋게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도 승진에서 배제됩니다.

안전하지 않는 나라

강간 및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폭력 등 한해 약 4만건이 접수됩니다. 2023년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33만 7천 건, 친밀한 남성에게 311명이 위협당했고 138명이 살해 되었습니다. 같은

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는 9천 명에 이르고 이들 중 55%가 10대, 20대 여성들입니다.

짓밟힌 민주주의

독재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살해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했습니다. 혐오와 배재의 정치로 자신들을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국민들을 간첩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법치주의를 만병통치약으로 내밀던 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절차도 거부합니다. 내란세력들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은 우리가 만듭시다

요즘 집회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G-DRAGON의 "삐딱하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대중가요가 불립니다. 아파트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전세 사기 피해 세대, 그들은 세상을 삐딱해야 보아야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나 봅니다. 연애, 결혼, 출산, 경력,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들이 민주노총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진짜 길을 만들어갑시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857년 3월 8일, 뉴욕시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10시간 노동,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51년 후인 1908년 3월 8일, 뉴욕 루트거스 과정에서 수 천명의 섬유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선거권의 남녀차별 철폐와 노동3권을 요구했고 이 투쟁은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3.8행사가 처음 개최되었으나 이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1985년 3월 8일 서울 명동에서 300여명의 여성들이 모여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